

이원재 1차관, “건설산업 디지털화, 공공이 마중물 역할” 강조

- 21일 양평-이천 고속도로 건설현장 찾아 BIM 확산 위한 역할 당부 -

□ 이원재 제1차관은 6월 21일 양평-이천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BIM* 적용현황·성과를 점검하고,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건설산업의 디지털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.

* 3차원 모델을 기반으로, 건설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통합 관리하는 기술 (Building Information Modeling)

○ 양평-이천 고속도로*는 시공 과정에 BIM을 도입해 공정·기성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, 관계기관 및 민원 협의시 3D 모델 등 다양한 툴을 활용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현장이다.

* (위치) 경기 광주시 도척면 ~ 여주시 산북면 (수도권 제2순환선의 일부, 19.43km)
(총사업비/공사기간) 9,674억원 / '19.9 ~ '26.12

□ 이 차관은 “대부분의 사업이 설계 단계에서만 BIM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, 시공 뿐만 아니라 추후 유지관리 단계까지 BIM을 활용하게 될 양평-이천 고속도로는 상당히 의미있는 사업”이라면서,

○ “현 정부 임기 내에 BIM을 전면 도입하는 등 건설산업 전반을 디지털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
□ 이 차관은 양평-이천 고속도로의 BIM 도입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 받은 이후, 주요 공공기관 및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 등과 함께 BIM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.

○ 간담회에서 이 차관은 “관련기준 정비, 전문인력 양성 등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”이라고 하였다.

- 또한, “**BIM이 안정적으로 안착하기** 위해서는 민간이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공공 부문에서 **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**”고 강조하면서,
 - “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는 **BIM 발주를 확대하고, 다양한 시범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만큼,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**”을 당부하였다.

- 아울러, “BIM은 가상 시공(시뮬레이션)을 통해 위험요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**건설안전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, 공공기관과 업계가 BIM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**”고 강조하였다.

2022. 6. 21.

국토교통부 대변인